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 - 제6번

열하나

Jeff Pippenger

2026-04-02

우리가 감추어진 역사의 연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제 다니엘 11장 40절의 마지막 때로부터 41절의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예언의 내적 노선과 외적 노선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그 예언적 역사의 내적 노선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의해 표시된다. 외적 노선은 다니엘 11장 11절에 의해 표시된다. 다니엘 11장의 외적 노선—곧 11절은 2014년에 역사 가운데 도래하였고,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적 노선—곧 11절은 2023년 12월 31일에 역사 가운데 도래하였다. 외적 노선은 땅짐승의 공화당의 뿔을 나타내며, 내적 노선은 땅짐승의 개신교의 뿔을 나타낸다.

미국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들의 주된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를 지목한다. 그 국가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교황권의 바다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땅의 짐승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요 국가, 열 나라의 하나의 연합체, 그리고 하나의 위조된 교회를 지목한다. 그 국가는 미국, 곧 13장의 땅의 짐승이며, 그 위조된 교회는 13장의 바다짐승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의 열 왕 연합체는 국제연합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표상된 이 세 세력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그들은 각각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에 제시되어 있으며, 거기서 모조 교회는 45절에서 두 바다 사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서 그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과 일치한다. 40절은 바다 짐승, 곧 모조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1798년에 시작되며, 그 본문은 부활한 그 바다 짐승, 곧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두 번째로 죽는 것으로 끝나므로, 그 본문은 시작된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난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중심이 되는 주요 국가는 미국이며, 곧 반역의 장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이다. 그 땅의 짐승은 또한 요한계시록 16장의 거짓 선지자이며, 다니엘 11장 40절에서는 병거들과 배들과 기병들이다.

반쪽 진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다

말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양쪽의 주제가 되는 나라는 미국이며, 다니엘서 11장은 그 나라의 마지막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진리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반쪽 진리 뒤에 숨어 거부하는, 확립된 성경적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이 숨어 있는 반쪽 진리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16장의 거짓 선지자가 모두 미국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말세의 성경 예언에서 주요한 주제라는 사실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께서 애굽과 관계하셨을 때에는 바로가 예언적 역사의 주요한 주제였고, 이어 바벨론과 관계하셨을 때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고레스도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다리오도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성경은 땅의 짐승의 마지막 통치자를 분명히 지목하며, 그것은 결코 무심한 언급이 아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의 예언에서 미국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적 장면마다 그 나라와 그 지도자를 함께 다루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며, 그 이전의 모든 거룩한 역사들은 말세를 예시한다.

마지막 이상 가운데의 나팔##

도널드 트럼프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서 첫 번째 주제이며, 그것은 단지 다니엘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예언적 환상들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언적 역사의 마지막 환상의 주제는 도널드 트럼프이다. 그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외적 마지막 때 예언의 발걸음을 식별하는 상징이다. 그는 또한 십사만 사천의 내적 계보를 식별하고 확립하는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십사만 사천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위의 개신교 뿔이며, 도널드 트럼프는 동일한 짐승의 공화당 뿔을 나타낸다. 그 짐승은 미국 헌법이며, 이는 처음에는 두 뿔 사이에 분리를 두었으나 마침내 그 뿔들을 교황권의 바다 짐승의 형상으로 연합시키는 입헌 공화 정부로 표상된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 3장의 금 신상을 말일의 일요일 법과 반복하여 연결시킨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재림교는 그것이 미국,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 넣은 자가 바벨론이었다고 확인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일요일 법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었던 자를 느부갓네살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이 이를 때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느부갓네살은 누구인가?

셋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 곧 히데겔 강의 이상은 세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특징과 서로 부합한다. 이 세 장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다니엘의 마지막 기별을 나타내기도 한다. 제1장의 그의 첫 번째 기별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알파와 오메가의 표가 제1장과 히데겔 강의 이상 위에 놓이게 된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은 히브리어 단어 "진리"의 틀 위에 놓여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글자와 열셋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인 스물두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10장은 다니엘을 예언의 학생으로 제시하며, 그가 스물두째 날에 라오디게아인에서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어서 다니엘은 12장에 제시된, 인봉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도록 능력을 받는다. 이 환상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다니엘을, 예언의 참된 학생들인 십사만 사천의 상징으로 제시한다.

"사람의 지적 진보가 어떠하든지, 더 큰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철저히하고도 끊임없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Testimonies, volume 5, 708.

제1장은 히데겔 강의 환상과 동일한 진리를 밝히며, 히데겔 강의 환상의 제1장은 그 제3장 곧 마지막 장과 동일한 진리를 밝힌다. 다니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지니고 있으니, 제1장이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 시험 과정을 밝히는 것처럼 제12장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이루는 세 장 안에서, 제1장은 알파요 제3장은 오메가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관하여 받았던 첫 번째 시험과, 삼 년 후 느부갓네살에게 심문을 받았을 때의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과도 일치한다. 다니엘 1장의 알파 시험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을 것인지 채식을 할 것인지로 표상된 성경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줄을 따라 줄을 더하는” 방법론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는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일에 대하여,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로” 인정받게 되었다. 오메가인 12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개봉될 때 증가되는 모든 지혜의 일을 깨닫는 자들이 곧 지혜 있는 자들이다. 12장은 1장의 오메가이며, 또한 히데겔 환상의 알파인 10장의 오메가이기도 하다. 그 알파인 10장에서 다니엘은 영적 경험 안에 정착하는데, 이는 12장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지적 경험 안에 정착하는 것과 일치한다. 1장은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인침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 안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방법론임을 강조한다.

말세에 참된 예언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1989년 끝의 때에 봉함이 풀려 증가한 지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9.11에서의 지식의 증가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2023년 12월 31일에 봉함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예언적 빛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들은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운동에서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변화된다. 그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들은 거울의 환상으로부터 도망한 자들에게서 분리된다.

인간 반역의 기별

10장과 12장은 십사만 사천을 다루는데, 이는 그것들이 진리의 구조 안에서 첫째와 셋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10장의 looking glass vision의 내적 경험으로 능력을 부여받고, 더불어 Daniel 12장의 인봉되지 않은 이해로 계몽된 후에, 그들은 인간의 반역의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인간의 반역의 기별은 Daniel서와 Revelation서로 표상되며, 그 반역의 기별은 Daniel에 제시된 성경 예언의 왕국들의 예언적 틀 안에 놓여 있다. Daniel서 안에 있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증언의 예언적 상징성은 11장에서 완전히 제시된다. 11장은 바벨론의 종말과 메대-바사의 시작에서 출발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벨론의 치명상을 시작점으로 삼는데, 이것은 1798년에 교황권이 입은 치명상을 예표한다. 교황권의 치명상이 곧 다가올 Sunday law에서 치유될 때, 그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의 머리가 된다. 그때 그녀는 Revelation 17장의 짐승을 탄 여인이 되며, 그 여인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곧 다가올 Sunday law에서 바벨론과 교황권의 치명상은 둘 다 치유된다.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인간의 반역은 다니엘서의 틀이며, 11장은 마지막 날들의 그 반역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외적인 예언의 기별이다. 11장에서 발견되는 그 반역의 증언은 그 장의 마지막 여섯 절과 일치하며 또한 그 안에 담겨 있다. 마지막 여섯 절은 인간의 반역에 관한 기별이며, 그 마지막 여섯 절은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더불어, 또한 그 안에서 제시된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서는 한 장으로 축소되며, 그 한 장은 다시 그 장의 여섯 절로 축소되고, 그 여섯 절은 다시 한 절의 후반부에 담긴 숨겨진 역사로 축소된다.

제11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 의해 앞뒤로 둘러싸인 열세 번째 글자를 나타내며, 첫째와 마지막은 언제나 동일하다. 첫째 장은 거울 환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밝혀 주고, 마지막 장은 개봉의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밝혀 준다. 영감은 우리에게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진리 안에 굳게 정착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제10장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영적인 측면에서 밝히고, 제12장은 지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 제10장은 세 번의 접촉과 하늘 존재들과의 세 번의 상호작용을 밝힌다. 제12장은 지혜로운 자들의 세 단계 정결을 밝히는데, 그것은 지적인 예언적 진리의 증가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 것으로 성취된다. 제10장이 세 번의 접촉과 세 번의 하늘과의 만남이라는 두 가지 ‘셋’의 상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제12장도 세 단계의 시험 과정과 더불어 세 개의 시간 예언을 지니고 있다.

10장의 세 하늘의 만남은 진리의 서명을 지니고 있는데, 다니엘과 처음과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한 하늘의 존재는 천사 가브리엘이었고, 가운데 존재는 미가엘이었다. 세 천사이지만, 둘째 단계의 천사는 그리스도였다. 이 세 번의 접촉은 다니엘에 대한 점진적인 세 단계의 능력 부여를 나타낸다. 이 구절 안에서 다니엘은 보는 거울의 이상을 세 번 확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 세 보는 거울의 이상을 10장에 나오는 mareh 이상에 대한 일곱 번의 언급 안에 위치시키고 있다. 히브리어 단어 mareh는 두 번은 “appearance”로, 또 두 번은 “vision”으로 번역되며, 그 밖의 세 번 역시 “vision”으로 번역된다. 그 ‘그 밖의 세 번’은 mareh가 아니라 mareh의 여성형 표현인 marah이다. 10장에는 점진적인 능력 부여를 위한 세 번의 접촉, 진리의 서명을 지닌 세 하늘의 만남,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일곱 번의 언급의 일부를 이루는 세 보는 거울의 이상이 있다.

외관

mareh가 “appearance”로 번역된 두 경우는 그것이 “vision”으로 번역된 두 경우와 일치한다. 이 둘은 함께 그리스도를 예언의 역사 속에서 이정표로 나타나는 상징으로 확인해 준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한 발은 땅에, 다른 발은 바다에 둔다. 화잇 자매는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보다 못하지 않은 인격체”였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천사는 예언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appearance”이다. 그분은 다니엘 8장 13절에서 팔모니로 나타나시며, 요한계시록 5장 이후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신다. 다니엘은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예언적 나타나심을 따라가는 말세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도망하는 looking glass vision으로 인도된다.

예언이 개봉될 때 증대되는 지식을 이해하는 데 기초한 제12장의 세 단계 정결은 세 가지 ‘시간 예언’과 함께 제시되는데, 이 시간 예언들은 그 세 절 각각에 대하여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성취를 나타낸다. 제7절의 1260년, 제11절의 1290년, 그리고 제12절의 1335년은

각각 시간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세 절을 가리키며, 그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그 후 밀러파에 의하여 그들이 선포한 기별에 대한 역사적 확증으로 인식되었다. 그 절에 있는 예언, 그 역사적 성취, 그리고 밀러파의 그 역사에 대한 적용은 이 세 예언의 마지막 날의 성취를 증언한다. 그러나 밀러파의 시간 적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그 절들에 있는 시간에 대한 언급은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상징성은 그 절 자체와, 그 절의 역사적 성취와, 그리고 밀러파의 기별 제시를 적용함으로써 그 절들 속에 확립된다.

제11장의 인간 반역의 연대기는 동맹과 조약과 언약으로 엮여 있다. 제11장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언약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대조된다.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14년 2월 26일.

로마는 그 전체 환상을 확립하며, 교황권 로마가 제11장에서 처음 언급될 때, 그녀는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로 규정된다. 다니엘 11장에 있는 내적 노선, 곧 40절의 숨겨진 역사 안에 있는 내적 노선은 말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을 나타내며, 외적 노선은 바로 그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을 가리킨다. 말세에 지식의 증가로 유익을 받지 못할 부류에 있어서, 그들의 외적 역사는 깨어진 인간 조약들의 예언적 실 위에 짜여 있다.

십사만 사천의 내적 계보 안에는 하나님과 말세의 남은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 주는 여러 상징과 예증이 짜여 있다. “열하나”라는 수의 상징은 그러한 진리들 가운데 하나이며, 열한 장의 열한째 절이 말세의 외적·내적 이상을 밝혀 준다는 사실은, 이사가 열한 장 열한째 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언약 백성의 목적과 사역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사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회복하실 것이다. 이사야 11:11.

흩어짐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두 번 흩어지게 될 것이며, 다시 모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7절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일을 지적하므로, 천이백육십 일을 흩어짐의 상징으로 나타낸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그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하였고, 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일이 다 끝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더라. 다니엘 12:7.

두 증인은 그들의 증언을 마친 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흩어졌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쳤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며, 곧 우리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볼 것이요, 그 시체를 무덤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1:7-10.

다음 절인 11절에서, 두 증인은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 있던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 바로 그 동일한 죽음이 에스겔에 의해 흩어져 있는 죽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묘사된다. 두 증인은 2020년에 죽임을 당한 공화당과 개신교의 별을 대표한다. 개신교의 별은 2020년 7월 18일에 대한 거짓 예언에서 죽었고, 공화당의 별은 2020년의 도둑맞은 선거에서 죽었다. 이사야는 증인들이 부활할 때, 곧 그가 두 번째로 모아짐이라고 밝히는 그때에, 그 증인들이 제십일시의 일꾼들을 모으는 기치가 된다고 밝힌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이가 나서 만민을 위한 기호로 설 것이요,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로 구할 것이며,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사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회복하시리라. 또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서 모으실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기치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모아지기 전에 먼저 쫓겨나야 한다. 그들은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쫓겨났고, 한때 죽임을 당한 후에는, 다른 부류가 기뻐하는 동안,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거리 위에 누워 있었다.

너희 곧 그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에 들을지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타나시리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66:5.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은 그들을 미워한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쫓겨난다. 예레미야는 그 기를 미워한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힌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피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11.

11절의 문맥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모든 선지자는 마지막 날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그 언약은 십사만 사천과 맺으시는 언약의 갱신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 언약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 곧 쇠풀무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엔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그때에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나 거둬 경고하며 이르기를, 내 음성엔 순종하라고 간절히 경고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언약의 모든 말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 가운데와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음모가 발견되었느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겼도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피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1-11.

예레미야가 밝히는 라오디게아 재림교에 대한 심판의 주제는 에스겔 11장 11절에서 반복된다.

이 성읍은 너희를 위한 가마솥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고기도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에스겔 11:11.

영감은 에스겔 9장의 인치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의 바로 그 인침과 동일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힌다. 11장의 11절은 다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내리는 심판에 관한 에스겔의 계속되는 서술일 뿐이며, 화잇 자매는 이 교회를 에스겔 9장의 예루살렘으로 밝힌다.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환상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9/11의 이상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감을 보여 주며, 이로써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교회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분리를 밝혀 준다. "열하나, 열하나"라는 상징은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상징이다. 이 수들을 합하면 이십이(22)가 되는데, 이는 이백이십(220)의 십분의 일이며,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는 상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기원전 677년과 457년 사이의 이백이십 년은 다니엘의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과 모세의 일곱 때의 시간 예언을 서로 연결한다. 이백이십 년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두 예언이 1844년에 함께 도달하였을 때 시작된 속죄의 사역의 상징으로 식별될 수 있다. 이백이십의 십일조로서의 스물둘이라는 수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관하여도, 열한이라는 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열하나와 스물둘 사이의 관계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 갈 것이다.